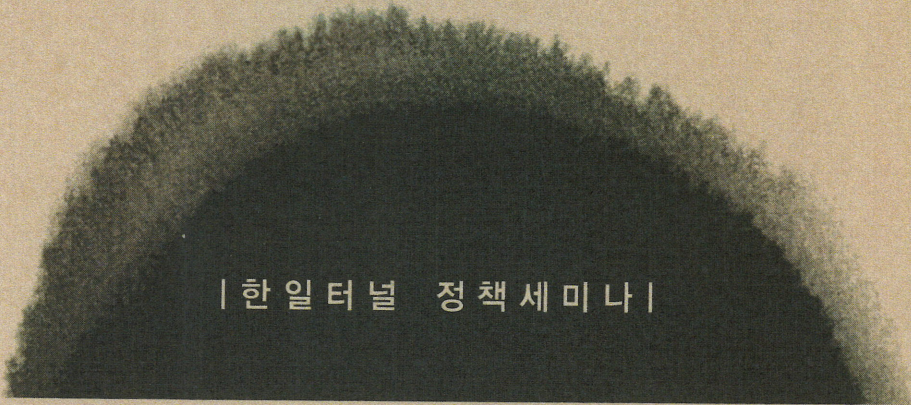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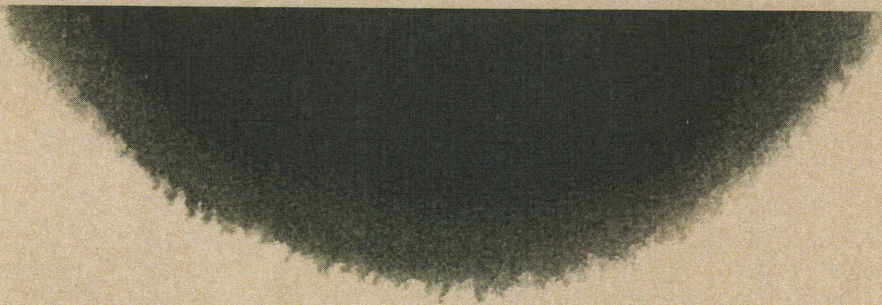




| 한 일 터 널 정 책 세 미 나 |

한일터널과 동북아 통합교통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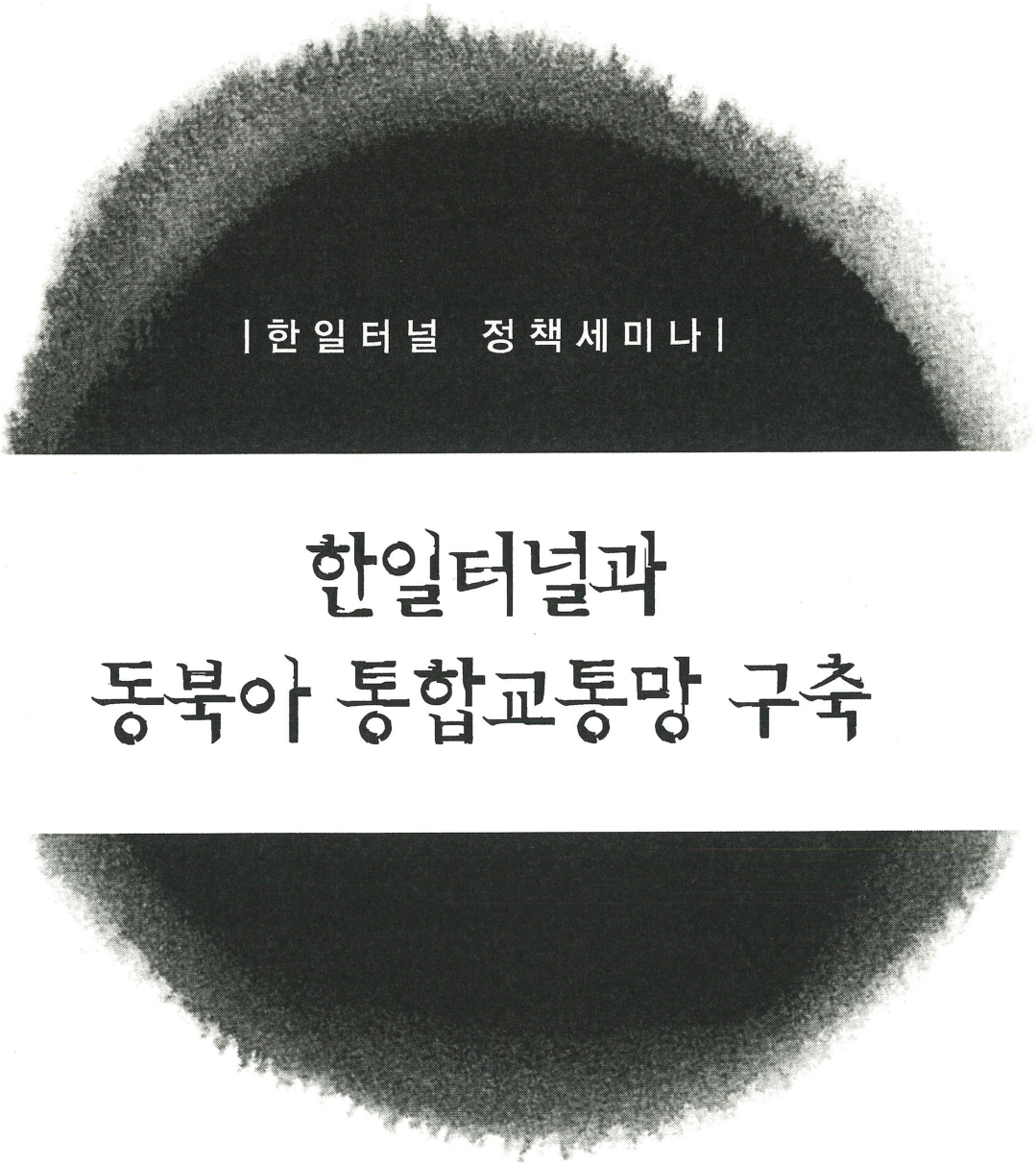


- 일시 : 2008년 10월 30일(목) 14:30~18:00
- 장소 :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10층회의실
- 주최 : 부산발전연구원, (사)한일터널연구회, (사)일한터널연구회

韓日トンネル 政策セミナー

韓日トンネルと 東北アジア統合交通網の構築

- 日時: 2008年10月30日(木) 14:30~18:00
- 場所: 釜山市上水道事業本部 10階会議室
- 主催: 釜山発展研究院、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会、社団法人日韓トンネル研究会



| 한 일 터 널 정 책 세 미 나 |

한일터널과 동북아 통합교통망 구축

- 일시 : 2008년 10월 30일(목) 14:30~18:00
- 장소 :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10층회의실
- 주최 : 부산발전연구원, (사)한일터널연구회, (사)일한터널연구회

Program

14:00~ 참가자 등록

14:30~14:50 **개회식**
 개회사 이계식 부산발전연구원장
 축사 野澤太三(노자와 다이조우) (사)일한터널연구회 회장
 축사 서의택 (사)한일터널연구회 회장

14:50~15:20 **기조연설**
「먼저 ‘마음의 터널’을 뚫어야」 - 한일 터널에의 제언
 허문도 (사)한일터널연구회 고문, 전 통일부 장관

사회 : 정헌영 부산대학교 교수, (사)한일터널연구회 이사

15:20~16:40 **주제발표**
「일한해저터널의 사업현상 및 추진과제」
 藤橋健次(후지하시 겐지) (사)일한터널연구회 상임이사
「한일터널 쟁점사항 및 기본구상」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북아 번영과 한일 해저터널 건설」
 신장철 송실대학교 교수
「한일 해저터널의 사회문화적 과제」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정책협력처장

16:40~17:00 Coffee Break

17:00~18:00 **종합토론** 野澤太三(노자와 다이조우) (사)일한터널연구회 회장
 濱建介(하마 겐스케) (사)일한터널연구회 부회장
 김제춘 대우건설 부산-거제간연결도로사업단 설계팀장
 류종우 부경대학교 교수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자유토론

18:30~ 만찬

プログラム

- 14:00～ 参加者登録
- 14:30～14:50 開会式
 開会の辞 イ・ゲシク 釜山発展研究院 院長
 祝 辞 野澤太三(のざわだいぞう) (社)日韓トンネル研究会 会長
 祝 辞 ソ・イテク (社)韓日トンネル研究会 会長
- 14:50～15:20 基調演説
 「まず『心のトンネル』穿つことから」 — 韓日トンネルへの提言
 ホ・ムンド (社)韓日トンネル研究会 顧問、前統一部長官
- 司会:チョン・ホニョン 釜山大学校 教授 (社)韓日トンネル研究会 理事
- 15:20～16:40 主題発表
 「日韓海底トンネルの事業の現状及び推進の課題」
 藤橋健次(ふじはしけんじ) (社)日韓トンネル研究会常任理事
 「韓日トンネルの争点事項および基本構想」
 チェ・チグ 釜山発展研究院 前任研究委員
 「東北アジアの繁栄と韓日海底トンネルの建設」
 シン・ジャンチョル 崇實大学校 教授
 「韓日海底トンネルの社会文化的課題」
 キム・ヒョンギョン 釜山発展研究院 政策協力処長
- 16:40～17:00 Coffee Break
- 17:00～18:00 総合討論 野澤太三(のざわだいぞう) (社)日韓トンネル研究会 会長
 濱建介(はまけんすけ) (社)日韓トンネル研究会 副会長
 キム・ジェチュン デウ建設 釜山—巨済間連結道路事業団
 設計チーム長
 リュウ・ジョンウ 釜慶大学校 教授
 パク・インホ 釜山経済再生市民連帯 常任議長
 自由討論
- 18:30～ 晩 餐

차례

〈인사말〉

〈기조연설〉

먼저 「마음의 터널」을 뚫어야 - 한일 터널에의 제언	13
-------------------------------	----

허문도 (사)한일터널연구회 고문, 전 통일부 장관

〈주제발표〉

일한해저터널의 사업현상 및 추진과제	25
---------------------	----

藤橋健次(후지하시 겐지) (사)일한터널연구회 상임이사

한일터널 쟁점사항 및 기본구상	39
------------------	----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북아 번영과 한일 해저터널 건설	61
--------------------	----

신장철 숭실대학교 교수

한일 해저터널의 사회문화적 과제	71
-------------------	----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정책협력처장

次 第

〈挨拶〉

〈基調演説〉

- まず『心のトンネル』穿つことから — 韓日トンネルへの提言 13
 ホ・ムンド (社)韓日トンネル研究会 顧問、前統一部長官

〈主題発表〉

- 日韓海底トンネルの事業の現状及び推進の課題 25

藤橋健次(ふじはしけんじ) (社)日韓トンネル研究会常任理事

- 韓日トンネルの争点事項および基本構想 39

チェ・チグ 釜山発展研究院 前任研究委員

- 東北アジアの繁栄と韓日海底トンネルの建設 61

シン・ジャンチョル 崇實大学校 教授

- 韓日海底トンネルの社会文化的課題 71

キム・ヒョンギョン 釜山発展研究院 政策協力処長

개회사

이계식 _ 부산발전연구원장

오늘 『한일터널과 동북아 통합교통망 구축』이라는 주제로 한일 정책세미나를 저희 연구원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세미나를 위해 일본에서 오신 노자와 다 이조우 일한터널연구회 회장님, 하마 부회장님을 비롯한 일한터널연구회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노자와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지난 8월에 저희 방문단 일행을 환영해주시고 먼 거리의 현장시찰까지 직접 동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일터널연구회의 허문도 고문님과 서의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허고문님의 강연은 오늘 이 행사를 더욱 빛내 주실 길로 확신합니다. 그 외 시청의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책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발표될 것이며 또한 활발한 토론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일양국의 신뢰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추상적인 논의 수준에서 지난 8월 동경에서 저희는 터널건설의 전향적인 접근방법 및 대안적 노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층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감안하면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가 위축되지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위기 등 역내의 다양한 위기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동북아지역의 통합경제체제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동북아 통합교통망의 구축 차원에서 한일간의 터널연결 문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양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터널 연결도시들이 처한 구체적인 여건을 폭넓게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과 후쿠오카는 최근 국경을 넘는 초광역 협력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부산-후쿠오카 포럼 및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 행사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이처럼 부산과 후쿠오카시는 국경을 뛰어넘어 초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권 형성 차원에서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일양국의 전문가 여러분들의 진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서로의 생각과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산적인 논의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일본측 참가자 여러분과 한국측 참가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開會辭

李啓植 _ 釜山發展研究院長

今日、『韓日トンネルと東北アジア統合交通網の構築』というテーマで、韓日政策セミナーを当研究院で開催することをたいへん嬉しく思います。今日の政策セミナーのため、日本からお越しいただいた「日韓トンネル研究会」の野沢太三会長、濱建介副会長をはじめ日韓トンネル研究会の皆様を心より歓迎します。特にノザワ会長をはじめ皆さんは、去る8月、われわれ訪問団を歓迎し遠い距離の現場視察までお供して下さいました。改めて感謝申し上げます。そして「韓日トンネル研究会」の許文道顧問と徐義澤会長をはじめ関係者の皆様を心より歓迎します。特に韓日関係に幅広い識見を持つ許文道顧問の講演は、今日のセミナをさらに輝かしてくれることを確信します。その外、釜山市役所の皆様と、今日参加していただいた皆様に感謝申し上げます。

今日の政策セミナーでは、韓国と日本の多様な立場と見解が発表され、また活発な議論が行われると思われます。何より大事なことは、韓日両国の信頼と協力の精神に基づき相互理解の幅を広げることです。この会議はこれまでの全般的な議論を経て、特に私どもは去る8月の「東京会議」でトンネル建設の前向きな接近方法及び代案路線を提案しました。これを踏まえながら、今日は一層進んだ議論が行われ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ところが、残念なことに、最近の国際的な金融危機の流れの中では、このような大規模プロジェクトに関する議論は萎縮され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この憂慮もあります。しかしもう一方では、金融危機など域内の多様な危機要因を共同対応するためには北東アジア地域の統合経済体制がさらに必要になり、それを支える北東アジア統合交通網の構築に向け、韓日トンネルの建設問題が新たな視点で注目される可能性もあります。従って韓日両国がおかれた特殊な状況、ひいてはトンネル連結都市の具体的な状況を幅広く理解する努力が必要になります。

特に釜山と福岡は、最近国境を越えた超広域協力プロジェクトの本格的な推進に向け、具体的な論議を進めています。今週でも「釜山・福岡フォーラム」及び「釜山・福岡友情の年記念行事」が続いて開催されます。このように釜山と福岡は国を越え超広域圏に発展するための共同の努力を具体的に進めています。そしてこのような経済圏の形成を支える効率的な交通インフラ構築の必要性はさらに高まっていくと思われます。

今日のセミナが、韓日の専門家達の真剣な発表と議論を通じお互いの考えと条件を理解し、生産的な議論の機会になることを期待します。多忙な日程の日本側の参加者、韓国側の参加者、そして皆様の健康と幸運をお祈り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축사

노자와 다이조우(野澤太三) _ 일한터널연구회 회장

이번, 부산발전연구원, 한일터널연구회 및 일한터널연구회의 공동주최에 의한 일한해저터널 정책세미나가 개최된 것은 정말로 시의를 얻은 기획이며, 발안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있어서는, 일한해저터널에 관하여, 일본측으로부터는 사업의 현상과 추진의 과제, 한국측에서는 쟁점이 되는 사항 및 기본구상, 북동 아시아의 번영과의 관계 및 사회, 문화적인 연구가 발표되어, 토론이 이루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의 연구를 통해서, 일한 해저 터널의 실현의 전제가 되는 해저의 지형, 지질, 단층의 유무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사를 거듭되어, 개략의 경향이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 공백인 구역도 남고, 구체적인 루트에 따른 조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선선정은 터널의 건설비를 구체화하고, 이용상의 전망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시점과 종점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인구배치의 가장 적절한 도시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개발된 철도, 도로, 항만등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최대한 활용하고, 비용 절감과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아울러 연안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여 크고 작은 섬에 적절한 역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한터널은 그 연장, 깊이에 있어서 세계 제일의 규모가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세이칸 터널53km, 프랑스영국을 잇는 영불해저터널51Km이 이미 개업하여 20년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선의 규격이나 터널의 설계, 이용성은 선행한 이것 등의 실적이 대단히 참고가 됩니다. 또한 최근의 터널기술의 진보는 놀랍고, 시행법은 안전성, 시행속도, 경제성등의 시점에서 최적인 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저터널은 건설공사의 기술과 병행하여 유지관리운영에 대해서 확실한 전망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터널을 통해서 사람, 물건, 정보의 흐름은 일한 양국의 강한 유대 관계를 맺게 되어 양국의 번영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현저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제휴하여, 북동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주도자가 될 것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약을 기원하며 축사로 가름합니다.

しゅくじ

野澤太三 _ 日韓トンネル研究会 会長

この度、釜山発展研究院、韓日トンネル研究会および日韓トンネル研究会の共同主催により、日韓海底トンネル政策セミナーが開催されることは誠に時宜を得た企画であり、発案されました皆様に心から敬意を表します。

今回のセミナーにおいては、日韓海底トンネルに関し、日本側からは事業の現状と推進の課題、韓国側からは争点となる事項及び基本構想、北東アジアの繁栄との関係及び社会、文化的な研究が発表され、討論が行なわれることとなっております。

これまでの両国の研究を通じて、日韓海底トンネルの実現の前提となる海底の地形、地質、断層の有無等については相当な調査が重ねられ、概略の傾向が判明していますが、未だ空白の区域も残り、具体的なルートに沿った調査はこれから本格的に実施する必要があります。

路線選定はトンネルの建設費を具体化して、利用上の見通しを立てる上にもっとも重要な仕事ですが、始点、終点は、経済的に発展し、人口配置の最も適切な都市を選ぶ必要があります。又既に開発された鉄道、道路、港湾等のインフラを最大限活用し、費用の節減と効果の極大化を図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

併せて沿岸地域の活性化を期待して島嶼部に適切な駅を配置し、活用することが大事であります。日韓トンネルは、その延長、深さにおいて世界一の規模となりますが、これまでに日本の青函トンネル53km、仙英を結ぶユーロトンネル51Kmが既に開業し、20年以上の実績を挙げています。

路線の規格やトンネルの設計、利用性は、先行したこれ等の実績が大変参考になります。又最近のトンネル技術の進歩は目ざましく、施行法は安全性、施行速度、経済性等の視点から最適の工法を選択することが可能です。

海底トンネルは、建設工事の技術と併せ、維持管理運営について確実な見通しを立てる必要があります。

トンネルを通じて運ばれる人、物、情報の流れは日韓両国を結ぶ強い絆となって両国の繁栄を支える力となります。

日本と韓国は発展著しい中国と連携して、北東アジア経済共同体の担い手とな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皆様のご活躍を祈念ししゅくじといたします。

축사

서의택 _ (사)한일터널연구회 회장

21세기 지구촌 시대는 한 국가가 아닌 광역권내에 있는 다수의 국가들이 블록화해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시대를 말한다.

세계의 도처에서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구촌 최대의 블록은 지중해 연합으로 EU 27개국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 17개국 등 44개국이 공존의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남아 10개국의 ASEAN, 남미 12개국의 UNASUR, NAFTA 등 다수의 국가들이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급변해가는 국제적 상황에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의 발상은 단순히 한일간의 교통망 구축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의도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러시아와 미국 대륙을 연결하려는 베링 해협의 터널 구상도 대륙간을 육상을 연결해서 하나의 존으로 만들겠다는 시도로 해석해야 한다. 당장에는 한일간의 이해가 다르고 양민족간의 정서가 다를지라도 먼 미래를 위해 지금 시작하는 것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라고 본다.

특별히 한일해저 터널은 양국간의 최종합의로 시행될 수 밖에 없는 국가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과 연구를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세미나는 양국간의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여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축하와 격려를 드린다.

祝辭

徐義澤 _ (社)韓日터널研究會 會長

21世紀の地球化時代は、1国の単独行動より、国際共同地域圏を構成する国々が力を合わせ共同の繁栄と発展にむけ協力する時代である。

世界の至る所で地域協力が進んでいる。地球村の中でも最大の地域協力は地中海連合で、EU27ヶ国と地中海沿岸の中東及び北アフリカ17ヶ国などの44ヶ国が共同発展に向け協力している。その外にも東南アジア10ヶ国のASEAN、南米12ヶ国のUNASUR、NAFTAなど多くの国々が地域協力を力を入れている。

私はこのような急激な国際状況を考えるとき、韓日海底トンネルの建設構想は単なる韓日の交通網の構築というレベルを越え、韓国と日本、中国、そしてユーラシアを結ぶ超広域経済圏を形成していく雄大な将来像の中からその意義を見出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る。ロシアとアメリカ大陸を結ぼうとするベーリング海峡トンネル構想も大陸間を繋ぎ一つのゾーンを作ろうという試みとして理解すべきである。現に韓日海底トンネルをめぐるのは、韓日の間に理解と情緒の違いが存在する。しかし将来に目を向け、今事業を始めるのが時代変化に正しく対応する姿勢である。

特に日韓海底トンネルは両国の最終合意があって、初めて実施できる超国家的プロジェクトであり、その分十分な議論と研究を蓄積しながら長期的なスタンスで進める必要がある。そのような面でも今日のセミナーは両国間の公開的な議論の場を切り開く極めて意味ある一歩であり、改めてお祝いと激励を申し上げたい。